

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



예비역 육군대령 안대희

전 호주 국방무관

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도전에 직면하고 극복하며 또 다른 어려움의 연속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“항상 기뻐하라; 쉬지 말고 기도하라; 범사에 감사하라.”(살전5: 16-18)라고 말씀하십니다.

2013년 호주 국방무관으로 3년간 근무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을 약 3달 정도 앞둔 시기였습니다.

업무를 정리하고 한국에 귀국하려고 준비하던 중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.

첫 번째는 귀국해서 부임할 다음 근무지가 아주 외진 전방부대로 예정되어 있었고, 그에 따라 나와 아내가 차후 거할 곳을 어떻게 해야할 지 결정하기 곤란했습니다.

두번째, 큰 아들이 육군중위로 군 복무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귀국하기 1개월전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. 우리 가족이 서로 3년 동안 헤어져 살았기 때문에 큰 아들이 전역하면 직장을 얻고, 같이 거주하고자 했습니다. 그러나 직장에 취업이 안되고 있었고, 나의 다음 보직때문에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

세번째, 작은 아들은 무관 부임 시 같이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대학 1학년 1학기에 재학중이었는데 계속 공부를 해야하나? 같이 귀국해야 하나?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국방무관이라는 신분 덕분에 대학으로부터 수업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, 귀국하면 외교관 자녀의 신분이 아니므로 비싼 수업료와 기숙사비, 생활비 등을 감당하는 것이 대령의 봉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.

이러한 소소하면서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민들을 평소에 하던대로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.

그러던 어느 날 아침, 기도중에 불현듯 “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늘 동행하셨고 셀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걱정하며, 감사하기보다 나의 소원만을 간구하고 있구나”하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“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 소원들을 다 아시므로 걱정하지 말고,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자.”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

그 다음 날부터 매일 기도시간에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 감사 기도를 드렸고, 운동이나 산책을 할 경우에는 찬송가 “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”를 암송하며 불렀습니다.

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한 달 정도하고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, 언급한 모든 걱정거리들이 하루 만에 한꺼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.

귀국 후 보직이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직책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, 큰 아들이 취직되었으며, 귀국하여 온 가족이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작은 아들도 우리가 귀국하더라도 학비감면 혜택을 준다는 대학교의 통보를 받아 호주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하면 "구하라 받을 것이라."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. 그보다 감사하며 찬양으로 그 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훨씬 더 기뻐하시고,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시와 때에 맞추어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

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주를 찬양하고,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고자 합니다.